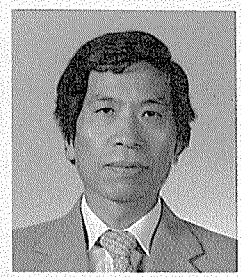
동위원소 국제학술대회 참가기



김 재 록
한국원자력연구소
RI / 방사선이용과제책임자

동위원소 생산·이용에 관한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Isotopes)가 '95. 5. 7.-12. 6일간 중국 북경에서 열려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상근부회장, Amersham Korea 사장, 한국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3명이 참석하여 학술발표 및 좌장업무를 맡아 보았다.

학회에는 세계 30개국에서 150여명, 주최국측 160여명 등 도합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개회식에 이어 Radiochemistry, Radiopharmaceuticals, Radioimmunoassay, Radiotracer technology, Radioactive sources, Labelled compounds, Radiation processing 등 10여개 session 및 poster session으로 나누어 220여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측 참가자가 60여명 이어서 주최국에 이어 참가자수 및 발표논문수가 많았던 반면 서방자유국가들로 부터의 참가자수 및 발표논문수는 비교적 많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역시 동·서양간 거리의 영향이었던것 같다. 이 분야 국제학술회의는 그동안 여러나라에서 여러번 개최되었지만 이번 중국 북경에서의 개최는 중국원자력학회와 중국동위원소 협회가 공동 유치·주관한 것이어서 중국측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였다. 학회개최를 위해 Nordion사 등 세계적 RI major 들이 후원하였다고 하며, 대부분 그들의 제품을 회장 아래층 홀에 전시하였었다. 개최장소인 Fragrant Hill Hotel(香山飯店)은 북경 서북쪽 산록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香山公園안에 있었으며 古刹, 유적과 白松巨木들이 우거져 있는 극히 보기드문 아름다운 곳이었다. 계절 또한 계

절인지라 산새가 지저귀고 만화방창하여 향긋한 꽃내음이 폐부에까지 와닿는 꽃동산이었다.

5월 9일 오후 plenary lecture가 끝난 다음 우리 일행중 방사성동위원소협회 황경호 부회장과 저는 韓·中科學技術協力中心, 北京代表事務所의 李精一 所長이 통역을 대동하고 안내하여 중국측 RI협회인 中國同位素與輻射行業協會 (China Isotope & Radiation Association)를 방문, Executive vicechairman, Xiao Guozhong(蕭國忠) Secretary General, Chen Dianhua (秘書長 陳殿華)를 비롯한 현지 협회간부들과 상면, 앞으로의 RI 분야 정보교환 등 양국간 협력이 상호 유익할 것임에 뜻을 같이 하고 협력협정서 교환을 전제로 휴대했던 협정서 초안을 황 부회장께서 전달하였고 간단한 선물도 교환하는 등 두 협회간 협력접촉의 첫 기회를 가졌었다. 앞으로 중국 RI협회 측과의 빈번한 교류가 예상되어 변모해가는 과학기술계 교류의 한 장면이 전개되고 있음을 실감케 하였다.

다음날 학회참가자들은 공식 스케쥴에 따라 진시황이 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오랜 세월 동안 쌓았다는 Great Wall과 명나라 황제 등의 무덤인 Ming Tomb의 tour에 나섰다. 그 오랜역사와 규모의 웅장함에 감탄하면서 대륙기질의 유유자적한 중국사람들과 넓은 땅, 오랜역사를 배경으로 살아온 그들의 삶,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만리장성 길목 구멍가게 주인이 되어 서투른 외국말로 물건을 팔지만 옛날 그들은 대단했고 앞으로의 저력도 분명한듯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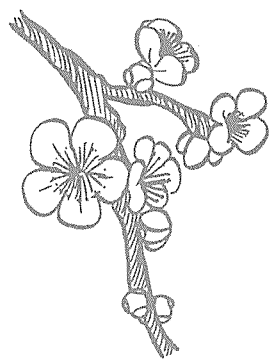
주최측은 다음 RI 국제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를 개별적으로 제안해 오기도 하였으나 워낙 갑작스런 제안이어서 우리들은 사실상 확언하기가 어려웠었다.

5일간의 회의는 어느덧 지나가고 우리들 중 일부는 Beijing-Xian(西安) - Guilin(桂林) - Guangzou(黃州) - Hong Kong으로 이어지는 Post Conference Tour(Route #1)를 위해 그 아름다운 회의장소를 떠나 여정에 올랐다. 중국 국내항공편 이용, 현지 guide 안내, 일급호텔투숙 등 잘 짜여진 여행스케쥴에 따라 움직였다. 西安비행장에 내리자 예쁜 중국 guide가 악수를 청하며 반가이 맞아 주었고 특유의 중국억양 섞인 관광안내 영어를 구사하며 차내에서 중국노래도 여러곡 불러 주었다.

맨 처음 안내된 곳은 西安시내에 있는 Nuclear Instrument Factory였다. 여러종류의 방사능계측기, 연기감지기, 수분검사기, X선 형광광도계, 방사선안전관리장비 등을 만들어 국내시장과 유럽시장에 공급하는 공장이었다. 여러 시제품을 전시하였고 공장은 잘 정돈돼 있었다. 마침 휴일이라 작업중인 사람은 볼 수 없었다.

西安에는 2000년전 진시황의 무덤이 동산처럼 크게 보존돼 있었고 그 수 km전방 지하에 있던 진흙으로 빚어구은 천군만마의 병용(兵俑, terracotta)이 발굴되어 커다란 돔안에 보관된 채여서 이를 보러 몰려드는 국내외 관광객으로 인해 출입구의 돌문지방이 납작하게 달아 있었다. 그 많은 병용들은 현재 중국인의 몸집보다 두 배 가까이 커 보였으며 마치 살아있는듯한 착각을 할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져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 발굴 당시 파손된 것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마

치 자신이 2000년전으로 거슬러올라가 살아 있는듯 한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하였다. 시내로 되돌아오는길에 양귀비가 목욕했다는 온천과 장개석이 한동안 갇혀 있었다는 가파른산과 연못이 있는 공원에 들렸었으며 시내에 들어가 역사박물관도 관람하였다. 화살이 턱에 박혀 죽은 오래된 유골은 퍽 인상적이었다.

다음날 桂林市 상공에서 아름다운 지상의 천국을 내려다 볼 수 있었고 공항을 빠져나오자 아리따운 桂林 아가씨 guide가 새로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한 두군데만의 산이 수려한 것이 아니라 계림을 중심으로 한 넓은 지역일대 산이 온통 수려한 모습의 동양화폭 그대로였다. 桂林市 근교 강에서의 cruise에서는 강을 따라 내려가며 안개낀 골짜기의 산봉우리와 검푸른 물, 삿갓쓴채 뗏목타고 낚시질하는 어부 등이 어부사시사와 함께 어우러진 동양화의 화폭속에 파묻혀 천국에 오른듯한 기분으로 4시간여 벙벙한 상태로 보냈다. 과연 이렇듯 아름다운 산천이 지상의 어디에 또 있으랴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중국의 많은 인구,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보상으로 이 아름다운 桂林山川을 신이 보냈다고 석회암의 기기묘묘한 형상, 누군가가 너무도 과장된 東洋畵를 그렸다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던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아직 옛날 생각에 잠겨서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곳 桂林山川은 현대문명으로 오염되지 않았다. 어쩌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현대문명의 침투를 거절할 것이다. 그 곳 자연앞에선 현대문명의 악랄한 이빨도 무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